

광주·전남 물류창고 면적 부산의 절반도 안돼

등록 창고수 160개...전국 점유율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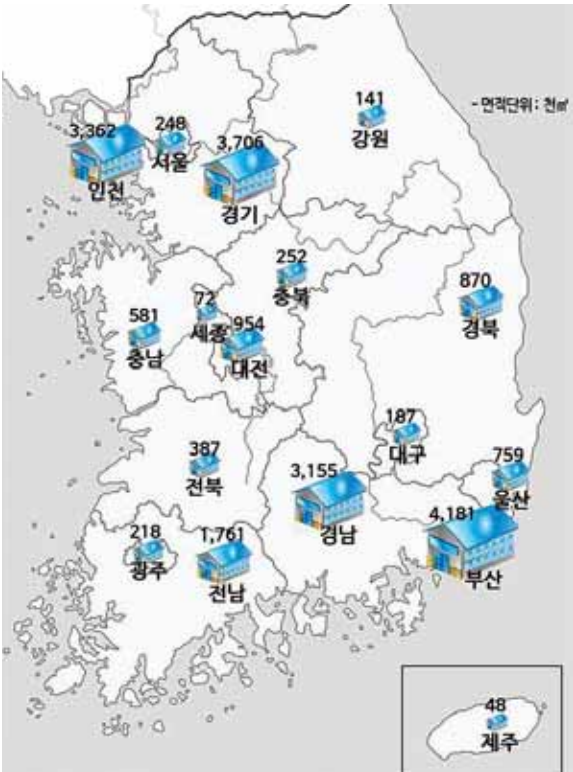
대부분 냉동창고 등 농수산물 보관용

제조업 위주 물류 인프라 확충 필요

광주·전남의 영업용 물류창고 점유율이 전국의 1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역시 제조·판매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물 보관용이나 운송·택배용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제조·판매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빈약하고 물류·유통 인프라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지역에서는 물류창고 유치 및 업종 다각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2014년 말 기준 영업용(임대용) 물류창고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지역의 등록된 창고수는 현재 일반창고 88개와 냉동창고 52개, 보관창고 30개 등 모두 160개였다. 면적 기준으로는 197만 9000㎡로 여의도 면적(287만㎡)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등록 창고 숫자로는 전국 2219개의 7.7%에 불과하며 면적은 2088만5000㎡의 10.6%에 해당한다. 이는 18.5%의 점유율을 보인 경남은 물론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충청권(점유율 10.9%)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면적 또한 아적장 등 보관장소를 포함해 광주·전남이 197만㎡로 경남(315만㎡)보다 적었으며 부산(418만㎡)·경기(370만㎡)와는 배 차이가 났다. 인천은 336만㎡, 충청권은 186만㎡였다.



용도도 대부분 농작물이나 수산물의 보관용으로 한정됐다. 농산물 등을 저장하는 냉동창고의 경우 전남 41개를 포함 총 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을 뿐 일반창고와 보관창고(아적장)는 100개도 되지 않아 점유율이 10%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업태별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된 물류창고 중 광주·전남 지역은 255곳으로 전체 4664곳의 5.5%에 불과했다.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 203곳으로 79.6%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운송 및 택배업 창고가 36곳으로 14.1%를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과 판매업을 위한 물류창고는 7곳과 6곳으로 각각 2.7%와 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류업계는 “물류창고는 생산 공장에 근접해 있고, 교통·항만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기 마련”이라며 “영업용 물류창고는 경기와 경남지역에 몰려있고 광주·전남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유통업계는 물류유통 기반시설의 확충과 물류창고업의 사업 다각화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창고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택배·운송을 위한 물류창고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위주로는 물류창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 등 영세업체들이 협력해, 전국화 전략으로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차 하이브리드 연비왕 지난 28일 경기도 구리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 이벤트 결승전'에서 엄종현(사진 가운데)씨 등 3명이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이 차의 공인 연비(17.7km/ℓ)를 웃도는 높은 연비를 기록했다. <현대차 제공>

쌀·밭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지급기준 대폭 완화...오늘부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쌀직불금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농한기에 휴경하는 논에서 식량·사료작물 등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발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지난해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에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경우 올해 3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세계, 금호산업 인수전 철수

호반건설·사모펀드 4곳 압축...금호아시아나 유리해져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금호산업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했던 신세계가 지난 27일 인수의향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업체는 사모펀드 4곳과 호반건설 등 총 5곳으로 좁혀졌으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배제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보다 유리한 게임이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금호산업 지분 매각 입찰에서 빠지기로 했다는 입장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신세계 측은 “금호산업 계열사인 금호타미날에 광주신세계가 입점해 있어 영업권을 방어하려 했다”며 “그러나 경쟁업체(롯데)가 인수의향서를 내지 않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참여를 견제하기 위해 인수의향서를 냈다가 롯데 측의 불참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 불참하는 쪽으로 의사를 번복한 것이다.

인수전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양강 구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던 신세계가 발을 빼면서, 인수전 참여 업체는 현재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와 IMM, MBK 등 사모펀드, 중견건설회사인 호반건설만 남게 됐다. 대기업들이 금호산업 인수에서 빠진 것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그룹 재건에 사운을 걸고 있는데,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발목을 잡는다’는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인수전은 박삼구 회장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한때 신세계가 가세하자 ‘인수금액 1조원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인수금액이 전망치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회장은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모펀드나 호반건설이 입찰한 최고가를 수락하기만 하면 금호산업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실제 우선매수청구권이 보장된 기업 인수 및 합병(M&A)에서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인수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faxian@kwangju.co.kr



봄 신부 '러블리 웨딩페어' 지난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행사장에서 신부 메이크업 시연행사가 열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이번 '러블리 웨딩페어'는 8월까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인천·김포공항 출국 대기 사라진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제선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권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은 부절 짐이 없으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카운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국제선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를 2일부터 일본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선 승객은 인터넷으로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마쳤다고 해도 공항 카운터에서 인원 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탑승수속을 한 뒤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탑승권을 공항 출국장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이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단 짐을 부쳐야 할 때는 웹·모바일 체크인 전용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하고 탑승할 수 있다. 또 미국 교통보안청 규

정에 따라 미주행 항공편은 기존과 같이 웹 체크인 후 교환증을 출력해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을 예약하고 전자항공권(e-티켓) 구매를 완료한 승객은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로 여행할 때 출발 24시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웹·모바일 탑승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39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6	15	22	23	25	32	4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061,185,219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0,165,707					45
3	5개 숫자일치	1,663,058					1,628
4	4개 숫자일치	50,000					84,861
5	3개 숫자일치	5,000					1,439,71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광주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면길 70m 하남빌딩 5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